

# 폭삭 속는 세상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올 봄 ‘폭삭 속았수다’(매우 수고하셨습니다)란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였다. 억척스러운 어머니 아래서 아무지도 뽕뽕하게 자라난 오애순과 무쇠처럼 성실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양관식의 인생 이야기다. 봄에 만난 사람마다 빠지지 않는 화두였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콧끝이 찡했던 이유는 불우했던 어린시절과 삶을 희생했던 부모님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어릴적 어른들이 말하곤 했다. 살 만 하다 했더니 세상을 등진다고. 폭삭 속았수다의 관식 처럼.

며칠 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벼꽃이 핀 봄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린 날도 여러차례다. 겨울 같은 봄이다. 어떤 사람은 요즘의 이상기후를 ‘트럼프 날씨’라고 했다.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펼치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트럼프를 빗댄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

(對)미 무역 흑자가 많은 주요 무역국에는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베트남 46%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등이다.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새롭게 부과되는 34%포인트(p)를 더해 54%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정책이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90일간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다. 물론 중국(총 145%)은 예외였다.

트럼프가 물러선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의 집권 속제는 무역적자 해소와 부채 축소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 넘는 관세 전쟁 이후 미 국채 금리가 4.5%까지 치솟았다. 누군가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채권을 대거 팔면서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이렇게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부채를 줄이기는 커녕 늘어나는 구조다. 국채 금리에 연동되는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른다.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미 국민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 전쟁이 트럼프에겐 부메랑이 된 셈이다. 무역이 줄어 들면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 시장에선 “트럼프

가 채권 시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정치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최근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재테크포럼에서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 자산가들의 탈(脫)미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자산가들이 로마, 파리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자산(주식·채권 등)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많은 남편들은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씨’로 불리는 부상길이 70%라고 한다. 실제와 다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셈이다. 정치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파면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감능력이 부족한 ‘유체이탈’이다. 국민 모두를 생각하기 보다 자기 편만 생각한다.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백성들은 그냥 폭삭 속았다. 검사출신이어서 똑똑하고, 정치 신인이어서 순수할 줄 알았다. 실제로는 폭삭 속았을 뿐이다. 어쩌면 미국 국민들도 폭삭 속을 수도 있겠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며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그의 집권 초반 그림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가 내려졌다. 계엄선포에 가장 놀란 국민은 1960~1970년 계엄령을 경험한 이들이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 창문을 열어 상황을 파악했고,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은 인터넷으로 계엄을 찾았다.

모든 것은 자기가 경험한 대로 움직인다. 계엄을 겪었던 이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계엄 이후 자라난 세대는 국회의 사당을 찾았다. 계엄을 겪었던 이들은 시대가 변화했지만 변화한 세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했고, 계엄 이후 자라난 세대는 그 세대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세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한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46년생인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에는 30~40%가량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저임금에 확대한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게 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가 경험한 그 세대만의 성장전략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고, 이제는 이 분야가 한 국가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라가 성장했다면 그 이후에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로 성장을 꾀하는 것이 맞다. 기존에는

공장을 설립해 조립 등을 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제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 등의 서비스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 자산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이 성장의 끝에서 퇴보하는 시간, 우리나라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고용안정성과 임금이 여타 서비스업에 비해 높고, 세계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에 비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

다음 세대의 눈으로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이 정책을 내밀어도 꺾이지 않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서비스업이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다. /yul115@

오늘의 운세4월 18일 (음 3월 21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약속 시각에 늦을 수 있으니 시계 잘 보도록. 48년생 독존적인 사고로 지인을 잃는다. 60년생 미래를 위해 청약을 들어라. 72년생 누군가를 재미로 흥보지 않도록. 84년생 약간의 먹구름이 끼었으니 일이 잠시 지체됨.

 소

37년생 음악회에 초대 받으니 기쁜 하루. 49년생 거짓 눈물에 속지 않도록 하자. 61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지만 언제나 외톨이가 되는 듯. 73년생 공짜에 맛 들이지 않도록. 85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부담스럽다.

 호랑이

38년생 우러나는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50년생 돈하고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를 배려하도록. 62년생 앞날을 위해서 지금 실비보험을 들도록. 74년생 망신 살의 부정적 신살 주의. 86년생 아무도 능력이라 했다.

 토끼

39년생 돌아가 실 집이 없다. 51년생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63년생 망설임이 행운을 차서 도로 아미타불. 75년생 베풀지 않으면 덕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87년생 인맥이 도움이 되어 난국을 타게.

 양

40년생 힘겨움에 시달리는 건 결국 내 책임. 5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에 신중. 64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으니 게으름을 떠나라. 76년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끽하자. 88년생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뱀

41년생 기대가 크나 시간이 많이 지나쳐서 이득은 적다. 53년생 열정과 희망이 넘치는 일과이다. 65년생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마음에 있다. 77년생 이별 통보도 결국 각자의 인연 법. 89년생 바람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용서함.

 말

42년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보라. 54년생 같은 땅 같은 씨라도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 66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지 않다. 78년생 남의 허물을 말하려거나 드러내지 말자. 9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져 나간다.

 고양이

43년생 금할수록 돌아가야 실수가 없다. 55년생 마음만 잘 다스려도 재물이 찾아온다. 67년생 지각하지 않도록. 79년생 삼재이니 귀신과 액을 쫓기 위해 팔죽을 쑤어 먹어 보자. 91년생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어서 다행.

 원숭이

44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 56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6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 80년생 신앙이 있다면 기도로 힘을 찾아보도록. 92년생 저녁에는 정서적 지지가 큰 힘이 된다.

 닭

45년생 힘들어도 끝까지 완주. 57년생 위장 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으로. 69년생 의외의 복병을 조심해야. 81년생 사건이 많다 보니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이해. 93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돼지

46년생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 58년생 예단 준비로 의견충돌 예상. 70년생 오후음주는 삼가. 82년생 과학은 미래예측이 미리 예방되니 사전 준비할 수가 있다. 94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인 것.

 돼지

47년생 나중에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린 고부간이 나의 일이 될 수. 59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움츠려라. 71년생 그림을 취미로 해볼 것. 83년생 비를 맞고 감기에 걸리는 현상. 95년생 헤어지기도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인간사 인연.

## 김상회의四季

삶의 지혜, 절기



정월 보름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농본사회였던 만큼 선조들은 절기를 따져 농사 준비를 시작하곤 했다. 때맞춰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시절적인 기준을 알려주는 데는 절기가 딱 맞았다. 물론 절기의 개념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선조들은 절기가 곧 생활양식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조상 대대로 민속적인 행사를 포함한 세시풍속은 모두 절기가 계절을 알리는 시계 역할을 한 것이다.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사주명리학 역시 생년월일을 뽑고 대운을 살필 때도 기준이 되는 것은 절기로 파진 생월(生月)이 운명과 운기를 추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음력 1월 1일이 생일이라 해도 절기상으로 입춘 전이라면 이 사람의 생월은 1월이 아니라 전달, 즉 전해의 음력 12월을 생월로 보기에 띠도 새해가 아닌 직전 해의 띠로 본다. 이는 생일에도 적용이 되니 음력 2월 1일이나 2일이라 하더라도 경칩일 이전이라면 2월생이 아닌 음력 1월생으로 월주와 일주를 따지게 되니 운명 추론에는 음력 생일보다 태양에 의한 절기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태양의 황경(黃經)에 따라 24등분 하여 계절을 자세히 나눈 것인 절후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에 의해 계절과 날씨가 정해지는 만큼 실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절기가 지닌 계절적 특징이 거의 한 치도 틀림이 없기에 농사가 주된 산업동력인 나라들에 있어 절기야말로 정확한 계절 시계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면 그다음은 경칩이다. 개구리가 놀라서 깨어난다는 데서 유래한 절기의 이름인 경칩은 반드시 개구리들만이 반기는 날은 아닐 것이다. 개나리며 진달래가 동산을 물들이니 드디어 봄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출간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   |   |   |   |   |   |   |   |   |
|---|---|---|---|---|---|---|---|---|
| 6 |   | 4 | 3 | 8 |   |   |   | 1 |
| 8 |   |   |   |   | 1 |   |   |   |
| 2 | 5 |   |   |   | 6 |   |   |   |
|   |   | 2 |   | 9 |   |   |   |   |
| 9 |   |   |   |   |   |   |   | 6 |
|   |   |   |   | 1 |   | 9 |   |   |
|   |   |   | 9 |   |   |   | 6 | 4 |
|   |   |   | 1 |   |   |   |   | 5 |
| 3 |   |   |   | 6 | 5 | 2 |   | 9 |

|   |   |   |   |   |   |   |   |   |   |
|---|---|---|---|---|---|---|---|---|---|
| 3 |   | 1 | 2 |   |   |   |   | 6 | 4 |
| 5 |   |   |   |   |   |   |   |   |   |
|   |   |   |   | 3 |   |   |   |   | 9 |
|   |   |   |   | 8 |   | 3 |   |   | 2 |
|   |   | 6 |   |   |   |   | 8 |   |   |
| 1 |   |   | 7 |   | 6 |   |   |   |   |
| 9 |   |   |   | 8 |   |   |   |   |   |
|   |   |   |   |   |   |   |   |   | 8 |
| 8 | 1 |   |   |   | 9 | 4 |   |   | 7 |

|   |   |   |   |   |   |   |   |   |
|---|---|---|---|---|---|---|---|---|
| 6 | 1 | 2 | 9 | 9 | 2 | 8 | 7 | 8 |
| 9 | 8 | 8 | 2 | 7 | 1 | 9 | 6 | 2 |
| 7 | 9 | 2 | 1 | 8 | 8 | 9 | 7 | 6 |
| 2 | 6 | 7 | 1 | 9 | 6 | 8 | 9 | 1 |
| 9 | 9 | 7 | 8 | 2 | 8 | 2 | 1 | 6 |
| 8 | 8 | 1 | 2 | 6 | 9 | 2 | 9 | 7 |
| 8 | 6 | 8 | 9 | 2 | 7 | 1 | 9 | 2 |
| 2 | 7 | 9 | 1 | 9 | 2 | 6 | 8 | 8 |
| 1 | 2 | 9 | 6 | 8 | 8 | 7 | 2 | 9 |

|   |   |   |   |   |   |   |   |   |
|---|---|---|---|---|---|---|---|---|
| 2 | 8 | 7 | 6 | 9 | 9 | 2 | 1 | 8 |
| 8 | 9 | 6 | 2 | 7 | 1 | 8 | 9 | 2 |
| 9 | 2 | 1 | 2 | 8 | 8 | 9 | 7 | 6 |
| 1 | 7 | 8 | 9 | 2 | 2 | 6 | 8 | 1 |
| 1 | 2 | 8 | 9 | 6 | 7 | 9 | 8 | 2 |
| 2 | 6 | 9 | 8 | 1 | 8 | 2 | 9 | 7 |
| 6 | 8 | 2 | 1 | 8 | 9 | 7 | 2 | 9 |
| 8 | 1 | 2 | 7 | 9 | 6 | 8 | 2 | 9 |
| 7 | 9 | 9 | 8 | 2 | 2 | 1 | 6 | 8 |